

<2017년 2월 19일 주일말씀>

하나님이 택했으니 귀중하다

본 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 ◆ 사람이 ‘옳은 길’ 과 ‘좋은 것’ 을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꼭 제대로 잘하겠다고 하고는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마음먹은 대로 못 하니,
결국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여 실천을 못 하게 됩니다.
- ◆ <생각>이 무너지면 <실천>도 못 하고 무너집니다.
그래도 추락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또 해야 됩니다.

- ◆ 자기가 이 길이 좋아서 선택하고 만족하고 가다가도 변합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기뻐하던 자인데 마음이 식어 버립니다.

계속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기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기 마음을 주께 고하여 자기에 대해 알려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고하여 알려 줘야 됩니다.

성령께도 고하며 말해 줘야 됩니다.

어느 때는 자기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때 생각이 변하기도 합니다.

- ◆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각종 문제’로 마음이 변하고 식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인데도 ‘자기’가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인데도 자기가 ‘장담’을 못 합니다.

- ◆ 선생에게 보내오는 편지를 보면

“제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다가 생각이 바뀝니다.

제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 ◆ 이런 것 외에 수십 가지의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보고를 올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했습니다.

- ◆ 이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고로 ‘강하고 좋고 변하지 않는 것’을 택하여라.

그래야 오래가도 후회를 안 한다.

전능자 삼위의 생각과 일체 되고, 삼위와 항상 붙어서 같이 살아라.

그러면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것’ 을 택하여 얻게 해 준다.

그러면 차원 높게 골랐으니,

세월이 가도 기뻐하고 후회도 없고 생각도 변하지 않는다.

삼위와 일체 되어 하면 마음도 생각도 안 변하고

변해도 전능자가 변치 않게 잡아 주고 이끌어 준다.” 하셨습니다.

- ◆ <과거에 성장하지 못한 생각으로 선택한 것>은
<성장한 후>에 다시 보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성장했을 때, 차원 높을 때 택한 것>이 좋고,
그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고로 이 선택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지혜와 지식’ 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을 두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삶도, 그 어떤 것도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도 후회가 없고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월명동 자연성전에 쌓은 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작품 돌’ 입니다.

정말 좋은 돌들로 쌓아서 표가 나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제일 좋은 것’ 으로 골라 주셨으니,
시간이 지나도 계속 좋습니다.

- ◆ 작품 돌을 사 와도 열 개, 스무 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돌 장사하는 자들이 ‘목돈’ 을 벌기 위해
<좋은 돌 하나>만 따로 안 팔고,
<다른 돌들>도 <좋은 돌>과 묶어서 한꺼번에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사오게 되지만,
많이 사 오는 만큼 값을 많이 깎을 수 있어 유익입니다.

- ◆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골라 주서
<작품 돌>을 사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별로야.
어떤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작품이 아니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알라고, 잠깐 말해 줍니다.

- ◆ <작품 돌>은 ‘사 온 것들 중의 한 개’ 입니다.

<그 한 개>를 보고 ‘다섯 개’ 를 사 올 때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이 사람 한 명’ 만 골라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서너 명이 따라와서 다 전도하기도 합니다.

- ◆ 월명동의 작품 돌은

<최고의 작품>이 있고, <그다음 작품>이 있습니다.

각기 개성대로 있습니다.

<돌>도 ‘각기 작품’ 이듯이, <사람>도 ‘개성 작품’ 입니다.

- ◆ <큰바위얼굴 바위 작품>을 가져올 때도
그 돌과 같이 빼 온 돌들이 여러 개입니다.

그 돌들은 ‘형상’은 없어도
매끈하고 크고 납작한 ‘개성 작품 돌’입니다.

이 돌들은 운동장 끝에 놓기도 했고,
돌을 쌓을 때 조경으로 표 나게 쌓기도 했습니다.

그때 같이 가져온 돌들 중에서
<큰바위얼굴바위>만 ‘사람의 형상’이 있어서
<큰바위얼굴바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 <사람>도 ‘개성의 작품’입니다.

그중에서 ‘사고와 생각과 실천이 뚜렷한 자’는
마치 <형상석>처럼 ‘특별한 인간 작품’입니다.

- ◆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성령과 함께 수많은 것들 중에서 ‘작품’을 골라 주십니다.

그것은 평생 봐도 기쁘고, 좋고, 작품이고, 후회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그 센터에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 ◆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고르고 택해야
<표가 나게 좋은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골라서 주십니다.

- ◆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골라 주어 갖다 봐도
작품과 예술을 안 배운 자는
봐도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 ◆ <사람의 지식 차원으로 배우고, 좋다 하는 기준을 두는 작품>과
<하나님이 보시는 작품>은 다릅니다.

그 돌이 그 돌 같고, 형상이 개성대로 생겨서 비슷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한번은 하나님 성전에 <작품 돌>을 사다 놓겠다고 하니,
그때는 “알았다.” 대답만 하셨습니다.

작년 <110일 기도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한 지 80일이 넘었을 때
어떤 돌 사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돌 사진을 보니, 예전에 사려다가 비싸서 못 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봐도, 또 사람을 보내어 봐도
돌에 이끼가 끼어 있고 눈에 확 안 띄는데,
주인이 비싸게만 달라는 돌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별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다. 사라.” 하셨습니다.

- ◆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어 다시 돌 사진을 보니,
어떤 모양과 형상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돌이에요?” 하니,
하나님은 “그렇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돌을 자세히 보면서

“그런데 ‘특별한 작품’ 이 안 보여요.

돌에 이끼가 끼 있고, 색깔도 어두워요.” 하니,

“마치 죄를 회개시키듯,

돌을 깨끗이 씻고 닦으면 색이 돌아온다.”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 ◆ 그리고 또 말하기를

“<돌의 형상>은 조금 특이한데

사람 얼굴 형상은 아니고 보통이에요.” 했습니다.

- ◆ 이때 하나님께서 ‘작품 보는 차원’ 을 깨닫게 해 주셨고,
선생은 그 돌 하나만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돌 값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다른 돌들도 같이 묶어서 헐하게 사 왔습니다.

- ◆ 그 돌을 사 오는 날,
그곳에 까치들이 몰려와서 깹깹거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돌이 가니
정말 기쁘다는 만물 계시었습니다.

- ◆ 나중에 이 돌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돌을 또 찾으니 없었습니다.

천연 굴에도 이런 모양을 가진 돌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진짜 좋다, 귀하다 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하나님께 ‘작품’에 대해서 물으며,
그 돌의 모양과 형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천연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형상이었습니다.

그제야 이 돌이 무엇이 좋은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 주셨고,
그제야 ‘귀한 돌이구나!’ 정말 알고 귀히 대했습니다.

그제야 ‘귀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 ◆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운 차원>으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작품’을 못 찾듯이,
<사람이 배운 차원>으로는 ‘인생 작품’을 못 찾습니다.

고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물어보면서 다스리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한 자’를 제대로 알아봅니다.

<자기 자신>도 ‘어떤 면의 작품’인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 ◆ 처음에 전도한 생명을 보면 ‘보통’ 같고 ‘별로’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자’입니다.
모두 ‘개성대로 귀한 자’입니다.
다시 찾으려면 ‘다시는 없는 귀한 작품 인생들’입니다.

- ◆ 이 작품 돌은 ‘작년 110일 기도 기간 중에 얻은 돌’ 입니다.

이 돌을 사기 전에

“새로운 돌을 주시면 그 돌을 <하나님 상징 돌>로 정하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고로 이 돌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 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으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는 것’ 이 원칙입니다.

이 돌은 ‘사랑 작품’ 입니다.

- ◆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키우고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이끌어 새 역사를 만나 휴거되게 하셨으니,
개성대로 귀히 보고 더 차원 높여 살아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사람이나 어떤 작품이나 ‘하나님 차원’ 에서

하나님께 그 사연을 들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귀한 것’ 도 모르고 ‘좋은 뜻’ 도 모릅니다.

- ◆ 사람이 좋아해서 주는 작품도 있고,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작품이니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도

<하나님 차원의 작품>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모릅니다.

역시 사람은 ‘자기 지능, 자기 생각의 차원’ 대로 봅니다.

◆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했지요?

구약 율법 속에 있던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 생각의 차원>으로 ‘메시아 예수님’ 을 봤습니다.

고로 제대로 못 보고 이단, 적그리스도, 죄인으로 대했습니다.

◆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습니다.

<율법 속에 있는 유대 종교 전문가들>을 ‘건축자’ 로 비유했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 을 비유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전문가>도 못 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 였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를 못 알아보고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 차원’ 에서 봐야 제대로 압니다.

◆ <하나의 돌 작품>도 ‘창조하신 하나님 차원’ 에서 봐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고로 사람이 그리 자세히 봐도 ‘사람 선’ 에서만 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사람 차원 위의 것’ 을 얻게 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 ◆ 섭리사에서도 교역자나 지도자들은 ‘전문가’ 인데,
〈사람〉을 잘 못 보고 멀리하여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진실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꼭~ ‘하나님 차원’ 에서 봐야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세워 봐야 ‘인생 작품, 섭리 작품’ 이 됩니다.

- ◆ 선생도 어릴 때 석막교회에 다닐 때,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다. 별로다.” 하며 버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같이 클지 100분의 1도 몰랐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차원에서 보고 판단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성의 지도자들도, 섭리사의 지도자들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좋은 것〉을 얻으려면,
〈많은 것들〉 중에서 보고 또 보고, 찾고 또 찾아서 골라야 됩니다.
- ◆ 하나님도 〈그 시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고 또 보고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일들’ 을 그와 의논하시며,
그를 통해 ‘시대 역사’ 를 펴 나가셨습니다.
때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을 택하셨고,
신약 때는 ‘예수님’ 을 택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자들 중’ 에서 뽑고 택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경을 보면 임금의 아들 혼인 잔치 때도 다 선택하지 않고,
〈청한 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금이 사람들을 시켜서 ‘아무나’ 오라고 하고,
〈참여한 자들〉을 데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새 역사’ 를 비유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 지금은 〈삼위와 같이 사는 삶〉을 살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성인들’ 을 청하셨습니다.

신앙의 선조 때부터 2000년간 애타게 기다린 그들을 청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맞아
성경을 이루고 대(大)희망의 꿈을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한 자들’ 은 오지 않았습니다.

〈청한 자들〉이 섭리역사에 안 오면,
〈그 밖의 택한 자들〉로 ‘휴거 혼인 잔치’ 를 하게 합니다.

- ◆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생명을 고를 때도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생명을 얻으려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차원에서 택해야 됩니다.

- ◆ 교회 건물을 살 때도, 교회 건물을 얻어 그곳에 세를 들 때도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사려면,

1년 동안 전체를 둘러보면서 많은 것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사고 얻어야 됩니다.

〈사람 차원에서 좋은 것〉을 사면

사고 난 후에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도 후회하게 됩니다.

- ◆ 〈죽은 사람 밋자리〉도 ‘많고 많은 넓은 땅’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니,

간절히 기도하고 조르고 졸라서

주의 마음같이 내 집을 사듯이, 귀한 물건을 사듯이

신중히 골라야 됩니다.

- ◆ 선생은 내 것이 아니어도 항상 ‘작품’ 고르듯 고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고를 때는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께 사 달라고 합니다.

- ◆ 한번은 어떤 교회 건물을 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볼 때는 100% 마음에 안 듭니다.
80% 만족합니다.” 하니,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성전이 없으니, 그것을 사야 된다.
80% 마음에 들어도 최고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 ◆ 무엇이든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일주일을 살면서도, 한 달, 1년을 살면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섭리의 삶을 살면서도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행할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작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오직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섭리의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 마치 하나님이 작품을 골라서 사 주듯이,
하나님은 <섭리인들>을 택하시고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더 이상 없을 최고의 새 역사>를 골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시대 주인, 곧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런 휴거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것>만 골라서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와 미래에도 더 이상 없을

<최고의 휴거 역사>를 골라서 ‘우리의 것’ 이 되게 하셨습니다.

- ◆ 그런데 그 역사의 주인공인 ‘섭리인들’ 이
<휴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작품 돌>을 줘어도 자꾸 물어야 왜 귀한지 가르쳐 주듯이,
<휴거>도 매일 물어보면서 차원 높여 실천하는 자만
왜 좋은지 알게 됩니다.

- ◆ <작품 돌>을 사 오고 뭐가 좋냐고 하나님께 물으면,
어떤 것은 ‘70가지’ 나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며
이래서 좋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새 시대>가 뭐가 좋냐고 자꾸 하나님께 묻고,
<휴거>가 뭐가 좋냐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님이 ‘좋은 것’ 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700가지’ 는 다른 것과 구시대에 비해 좋다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고, 적어 봐요.

그리고 매일 잊지 말고, 휴거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 ◆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주가 그렇게 <휴거>가 좋다고 해도
<모르는 자들>은 “뭐가 좋아요? 이해가 안 가요.” 합니다.

그러다 결국 ‘휴거’를 내던지게 됩니다.

- ◆ 휴거를 내던지고 이성에 끌려 나가고
각종 유혹에 빠져 나간 자들은 영원토록 후회합니다.

- ◆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택하고 예정하시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왔으니,
<휴거>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휴거의 차원>을 높이고 <새 역사의 차원>을 높이고,
<시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삼위와 주와 같이 사는 삶>에
도전하고 집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 말씀 마쳤습니다.